

## 昨今の日本에서의 反原電動向

最近 日本에서는 反原電運動이 社會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日本 廣島市에서 개최된 原子力研修會에서 日本 朝日新聞社 編輯委員인 大谷健氏가 反原電 움직임을 보는 社會의 시각과 그 대처방안에 관해 강연한 내용이다.

日本 北海道電力 泊原電이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住民投票條例案이 北海道議會에서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직접 청구를 위하여 유권자의 22%에 상당하는 90만명이 서명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青森縣 下北半島에 핵연료사이클기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한 불매운동 확대와 脱原電法 제정을 추진키 위한 움직임이 제기되는 등 결코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 樣相이 바뀐 反原電運動

지금까지의 反原電運動은 그 지역이 주체가 되었다. 즉, 어민을 實行部隊로 한 지역운동에 혁신계정당과 노동조합이 지원하는 형태였었다.

원자력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은 過疎地로서 人口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政爭이 점점 더 격심해지고 있으며, 또한 선거에서는 保守의 득표가 압도적이기는 하나 保守끼리의 대립도 격렬해짐에 따라 그중 하나인 혁신파

가 하나의 그룹을 결성하여 原電을 둘러싼 격전이 된다는 構圖였다.

더우기 연안어업이 어려워지자 거기에 따른 어업보상이 가세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어민과 지역노조 등 혁신파가 합세를 하였다. 지역노조의 主體는 國勞와 日教祖 및 自治勞 등 官公勞組로서 처음에는 공동투쟁을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漁民側이 조건투쟁으로 바뀌어 간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역이 해결한다는 의도에 따라 外部人을 배제시키고 어민 대 전력회사나 정부의 절충으로 되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反原電運動의 경향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체르노빌사고에 의한 식품오염과 四國電力 伊方原電의 부하중운전시험을 계기로 일반대중의 原電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고조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대도시 중심인데다가 外部에서 現地에 편승한 반대가 더 적극적이 되었다. 즉, 歐美와 비슷한 형태로 바뀐 것이다.

戰後 노동운동중에는 일본을 社會主義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그러한

綱領이 남아있는 조합이 있다. 또 反안보투쟁 등 反體制運動도 있었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인 소련, 중국 등을 볼때 잘 되지 않으므로 여러 면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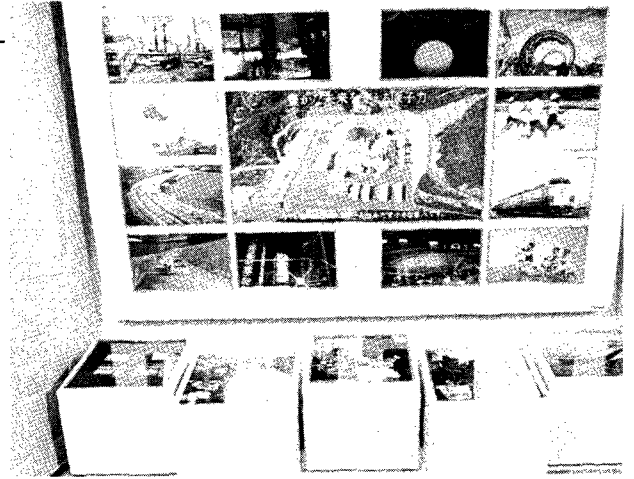
체르노빌原電에서 큰 사고를 일으킨 것도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에서 였다. 따라서 全共闘라든가 베트남反戰運動을 하던 運動家들은 사회주의운동에서 전환을 하여야만 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그 노선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表現을 인용하면 「赤에서 부터 綠으로」이다.

그밖에 巨大科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테크노로지와 하이테크라는 尖端技術의 발전이 인간성 상실과 연관되는 것은 아닌지. 이리하여 反文明, 反科學 또는 에코로지를 주장한다. 그들은 反原電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에 “No”라는 사람들이다.

先進國에서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모두가 의식주에 충족함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콘크리트정글에서 살면서 녹색의 자연을 동경하는 무드로 되었다.

오늘날에는 제1차 산업과 제2차 산업 등 直接物을 제조하는 사람들의 比重이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의 실제활동과는 떨어져 있는 교직원·학자·문필가·저널리스트·TV탈렌트·여성운동가 등이 증가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綠을 중시하고 깨끗한 환경을 요구한다. 그들은 타협을 모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성의 좌익정당이나 勞組 보다는 훨씬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反原電은 이들 대도시 급진파의 심볼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농협 등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깨끗한 국산식량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反原電운동에 동참하려 하고 있다. 이것



은 체르노빌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수입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식품과 결부된 반원전운동은 많은 호응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음식물이라면 어린이를 기르거나 부엌일을 맡고 있는 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작년말의 반원전운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도 큰 특징이다. 여성용 잡지가 반원전 기사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가 공통된 주제였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大企業의 중간관리층에서도 原電에 대해 不安感을 느끼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現實의 政治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 單一問題의 破綻

현재의 反原電運動은 인간의 정서에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좋다.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여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단한 박력감을 갖고 있다.

유럽의 녹색당은 자연환경, 삼림을 지키자는 한가지 이슈를 내걸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반원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Single Issue”, 즉 單一問題로 선거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神奈川縣 逗子市の 池子森林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原子力에서도 窪川(高知), 日置川(和歌山) 등은 추진과가 수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反원전파에게도 취약점은 있다. 그들은 反文明을 주장하면서도 실은 文明生活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電力이 남아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反원전운동이 고조된 작년부터 公교롭게도 전력소비가 대폭 신장을 보였다. 反원전운동이 전력소비를 억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反원전운동의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原電이 아니더라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는데, 國際에너지機構(IEA)는 새로운 石油火力發電所는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電力需要에 맞추어 석유화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 석유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석유의 사용을 절제하지 않으면 또 다시 석유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한 石油, 石炭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한 지구의 온난화현상과 산성비에 의한 森林의 파괴 등에 관한 문제가 UN 등 전세계적인 기구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綠을 지키자」라는 슬로건과 「反原電」은 서로 모순된다.

## 電源의 多樣化가 安全한 對策

에너지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의 상황은 지난 번 석유파동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바가 있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현재 국가전력량의 5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민투표에서 2010년에는 원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환경보호의식이 강한 스웨덴에서는 화석연료를 發電에 사용하려면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데다가 강화된 公해방지대책 등으로 지금의 1.5배에서 2배의 발전코스트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는 統一市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전력코스트가 상승하게 되면 스웨덴 산업계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에너지多消費國인 일본으로서도 電源의 다양화를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 낮은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므로 안이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장래의 안전보장관점에서 대비해 나가야 하며, 또한 餘力이 있을때 석탄·풍력·태양열 등에 관한 연구도 계속하여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자세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